

CC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편입 하기



커뮤니티 칼리지(CC)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편입을 할 수 있을까?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상위권 대학들은 불우한 환경을 딛고 jumpUp하려는 학생들을 좋아한다. 그런 만큼 CC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얼마든지 편입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부분 4년제 대학들은 다양한 학생들을 입학시키려고 노력한다. 대학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가운데 하나는 다양성이다. 그들은 모든 인종, 종교, 국적의 학생들을 사회경제적으로 폭넓게 받아들이길 원한다. 4년제 대학들이 CC 학생들을 편입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양성 확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대학들은 고등학교에서 곧바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들의 자료가 대학들의 입시 통계를 통해 랭킹을 매기는 데 반영이 된다. 그러나 편입의 경우 이 랭킹 자료에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은 다양성 확보를 위해 CC에서 과감하게 다양한 학생들을 받아들인다.

■ CC에서 상위권 대학 편입을 하려면
▶ CC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비록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성적이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CC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보여야 한다. 물론 고등학교 성적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퇴역군인으로 군 복무를 한 경우라면 오랜 시간이 흐른 고등학교 성적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 하나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라

많은 편입생들이 스포츠, 음악, 지역 봉사 등과 같은 많은 것들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려고 할 때 그들과는 다르게 변화를 이끄는 사람 등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특기 적성보다 나눔, 배려 등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 교수로부터 강력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편입에서 교수의 추천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냥 교수를 찾아가서 구두로 요청하기보다, 자신의 Background 등에 대해 교수에게 Resume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교수로부터 감동의 추천서를 받으면 좋다.

▶ 꼭 가고 싶은 대학을 편입대학으로 꼽아라

어떤 학생들은 최상위 대학만을 편입할 대학 리스트에 올린다. 그러나 이는 허영이다. 아이비리그 대학처럼 최상위권 대학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이 갈 수 있는 대학을 골라야 한다.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은 분명 다르다.

▶ 편입 에세이를 정말 잘 써야 한다.

대학들은 편입 에세이로 Why 에세이를 요구한다. 에세이에는 자기만의 색깔과 목소리를 담아 편입해서 가는 대학에 어떻게 기여하고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이고 감동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사진=shutterstock

명문대 합격 위해 피해야 할 실수들

미국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부지런히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생각하며, 일찌감치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깨닫는 것이다. ‘Admission masters’ (theadmissionmasters.com)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입시생들은 최상위권 대학 입시과정에서 흔히 몇 가지 유형의 실수를 저지른다.

■ 이것 저것 골고루 적당히 잘하기

많은 학생들은 이 활동, 저 활동 펼쳐 놓고 여러가지에 일정 수준 정도로 관여한다. 팔방미인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9학년과 10학년은 다양한 분야를 탐험하면서 자신의 핵심적인 열정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이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 어떤 활동들이 나의 관심과 열정에 가장 부합하는지 찾은 다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최상위권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깊이’를 중요시한다.

다수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적당히 하는 것보다, 소수의 활동에 깊이 있게 참여하면서 리더십을 증명하는 것이 파괴력이 더 크다. 내가 진정으로 열정을 가진 몇 가지 활동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데 주력하자.

■ 돈만 내면 등록할 수 있는 프리 칼리지(pre-college) 프로그램 참여

물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한다면 나의 관심 분야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는 경험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대학 캠퍼스 생활에 대해서도 맛을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원서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한다면? 돈을 들인 만큼 소득이 없을 수 있다. 입학사정관들은 인위적으로 만든 과외활동을 알아보는 데 탁월하다. 단순히 원서의 과외활동 리스트에 한 줄 추가하기 위해 돈만 내면 되는 여름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최상위권 대학 입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카데미 스킴을 증명하고 싶다면 능력에 기반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이 낫다. 강도 높은 아카데미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스칼라십을 제공하거나 수업료가 무료이며, 학생들에게 교수진 및 연구진과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권위 있는 프로그램인데다 참가비가 없는 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선발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 표준시험 점수 제출 않기

지난해 입시 사이클에서 많은 명문대들이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유지했고, 많은 학생들이 표준 시험 점수를 내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올 들어 아이비리그 다트머스 칼리지가 표준 시험 점수 의무화를 재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하버드대, 예일대, 브라운대, 컬럼비아 등이 2025년 가을학기 입시부터 표준시험 점수를 다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코넬대는 2026년 입시부터 SAT 또는 ACT점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 다수의 최상위권 대학들은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테스트 옵셔널로 인해 지원자들이 점수를 제출할지 말지 선택권을 가지기는 하지만 강력한 점수를 대학에 내는 것은 입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Sandy Kim 라인댄스 초급반 오픈

NOW OPEN

제일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샌디 김의 라인 댄스 초급반이
드디어 오픈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춤!

- 스트레칭 해소
- 정신 건강 증진
- 만성질환 예방
- 치매 예방 효과



<초급반>
월·목요일: 오전 9시~10시 15분
<중·고급반>
월·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등록비>
일주일에 두 번 참여시 월 \$80
한 번 참여시 월 \$45
★ 한국어로 수업 진행 ★

T.562.279.4200

305 E.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